

채만식의 『옥랑사』 연구

-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황 국 명*

차 례

- | | |
|-------------------------|-------------------|
| I. 들머리 | IV. 예측의 역사와 전망 부재 |
| II. 시간 모험과 공동체의 발견 | V. 맺음말 |
| III. 방관자적 거리와 행위 공간의 축소 | |

I. 들머리

채만식은 현실의 형성과정에 대해 혹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인간의 운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지녔던 작가이다. 장편 역사소설 <玉娘祠>도 그런 관심의 성과물이다. 30년대 동반자작가 논쟁 직후 채만식은 역사소설을 자신의 창작활동 범위로 꼽았는데,¹⁾ 역사극 <제향날>(1937)을 제외하고 해방 전에 그가 완성한 역사소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방 전 작품으로 <아름다운 새벽> <어머니> <여인전기>가 있지만, 이들은 개화기 공간의 변화하는 세태 풍속을 재구성했을 뿐이다. 또 해방 후의 <역사> <늙은 극동선수> <아시아의

*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교수

1) 채만식, 「창작의 태도와 실제-似而非評論拒否」, 『채만식전집10』, 창작과비평사, 1989, 526쪽.

운명> <한말사화 병인양요> 등은 역사적 사건을 연대순으로 재현한 강사류(講史類)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옥랑사>는 채만식의 유일한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²⁾

<제향날>과 함께 <옥랑사>는 채만식이 자신의 진보적 역사관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물이라 평가된다.³⁾ 동학과 기미전후, 그 이후의 시기를 배경으로 조·부·손 3대의 투쟁을 담아낸 <제향날>을 두고, 채만식은 부정에 의한 긍정이라는 역설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나가본 것이라 해설한 바 있다.⁴⁾ 실제로 <제향날>은 해방 전 채만식의 작품 가운데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작품이지만, 역사를 점유하려는 인간의 투쟁과 그 비극을 환상적으로 처리하는 한계를 보인다.⁵⁾

동반자 논쟁 과정에서 역사를 앞당겨 쓸 수는 없다면서 프로문학의 영웅적 급진성을 비판한 것처럼,⁶⁾ <제향날>을 발표한 같은 해에 역사는 문학청년의 거짓 정열이나 희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엄숙하게 스스로의 법칙대로 운동 발전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⁷⁾ 그러니까 역사발전의 합목적성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희망과 정열을 지닐 수 없는 한국사의 특수한 국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에 대한 작가의 관계 혹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 특히 해방 이후 식민체제의 외압이 사라진 상황에서 완결된 작품이므로,⁸⁾ <옥랑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작가의 인식, 현실과 전망

2) <옥랑사>는 1948년 1월에 완결되어 채만식의 사후 1955년에서 56년 사이 『희망』에 분재되고, 1961년 성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본고는 성화사본을 대상으로 하며, 원문 인용시 본문에 그 쪽수만 표시한다.

3) 최원식, 「채만식의 역사소설에 대하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177쪽.

4) 채만식, 「자작안내」, 『채만식전집9』, 창작과비평사, 1989, 520-521쪽.

5) <제향날>은 의지적인 행동과 갈등이라는 극 양식의 본질에 미달할 뿐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적 영웅상을 환상적으로 처리하고 현실에 놓인 아들의 세대의 좌절을 부각시킨다고 평가된다. 김윤식, 「채만식의 문학세계」, 김윤식 편, 『작가론총서12 채만식』, 문학과지성사, 1984, 50-52쪽 참조.

6) 채만식, 「현인군의 몽을 계함」, 『채만식전집10』, 40쪽.

7) 채만식, 「위장의 과학평론」, 『채만식전집10』, 127쪽.

8) 1939년경 집필을 시작했다는 후배 장영창의 술회에 근거하여, <옥랑사>는 1939

사이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옥랑사>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행위방식을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채만식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이 어떻게 상호연관되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과거에 대한 인식은 현재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하거니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은 작가가 역사와 맺는 관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⁹⁾ 그렇기 때문에, 옛 풍속을 그리고 배경을 과거 속에 두었다고 그 작품을 역사소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옥랑사>에서 현재의 전사(前史)가 작중인물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살펴보면, 작가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현재의 사회 전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Ⅱ. 시간 모험과 공동체의 발견

1. 역사 속으로의 편력

<옥랑사>는 구한말에서 국권박탈기에 이르는 30여 년의 사회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주인공 장선용의 일대기를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사랑하던 연인 옥랑이 죽자 삭발하고 입산을 하는 1900년을 첫머리로 삼지만, 사건의 발단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선용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대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서원(세납의 책임자)으로 이전에 속했던 선용의 아버지 장학수는 지배권력의 전횡에 희생된다(1장). 매부 강영석으로부터 갑신년 이후 변화하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던 차에 목숨을 구해준 백진사의 딸 옥랑에게 청혼하였다가 치욕스럽게 거절을 당하자 선용은 임진년 집을 떠나 여행에 나선다(2-3장). 여행 중에 최토호를 마주걸이로 혼을 내고 동서 송서방과 외숙 박재춘으로부터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4장). 서울에 도착한 선용은 다음 해 경복궁 수비병정이 되고 갑오년에 일본군과 전투를 펼친다(5-6장). 그 후 동학군의 2

년에 집필하여 1948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류종렬,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21쪽.

9)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이영옥 역, 거름, 1987, 214-217쪽 참조.

차 봉기가 일어나자 선용은 외숙 박재춘을 만난 뒤 동학군 진영을 떠나 귀향한다(7장). 귀향 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한 선용은 2차로 고향을 떠나 조선 전도를 여행하고, 다시 서울에 들러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에 참여하였다가 보부상의 황국협회와 싸운 후 귀향한다(9장). 귀향 후 포뿔한 옥랑이 아들 불명을 내고 죽은 뒤 입산하지만, 경술년 한일합병과 함께 아들이 죽자 일제주구를 처단하는 인간사냥 끝에 옥랑의 사당 앞에서 최후를 맞이한다(10-12장).

대강의 줄거리로 볼 때, 장선용의 편력은 심리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옥랑을 잇기 위한 심리적 도피라는 측면에서, 선용의 여행은 마지못한 여행이다. 사회적 동기로 보면, 선용의 고향 떠나기는 일종의 기회요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여행은 내부적 권력체계에 대한 반감 및 사회의 새로운 가치체계와 관련되고, 역사와 정치의 측면에서 세계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낡은 제도와 가치의 부정이라는 역사적 충동과 시효 없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낭만적 충동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역사적 정치적 충동이 사랑의 낭만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며, 옥랑에 대한 사랑이 역사적 정치적 행로에 동력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사회적 동기와 심리적 동기, 역사적 충동과 낭만적 충동이 서로 교섭하거나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옥랑사>는 플롯의 이중화 혹은 구조적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¹¹⁾

선용의 여행은 기한도, 원점회귀에 대한 약속도 없다.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도무지 기약이 없”(62)는 선용의 여로는 또한 명시적인 방향을 갖지 않는다. 1차 여행에서 “지향은 막연히 서울”이었을 뿐, “반드시 서울”이라거

10) 젊음의 소설적 메타포로 여겨지는 여행의 동기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행운이고 기회인 경우, 살던 곳을 의도적으로 부정한 결과 추방되는 경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도피의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F.Moretti, *The Way of the World*, Verso, 1987, pp.202-204 참조.

11) 옥랑을 잇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으로 고향을 떠나지만, 선용의 여행은 사랑을 금지하는 사회적 권력 탓이 아니라 선용의 내면적 강렬성 때문이다. 옥랑의 죽음도 사랑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산과정에서 몸조리를 잘못한 결과라고 하겠는데, 이런 우발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면 옥랑은 죽지 않고 선용과 행복하게 살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옥랑사>는 전기와 로맨스를 한 몸에 걸친 구조적 이중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8, 142-147쪽 참조.

나 “단숨에 서울”(64)로 가려는 생각은 없었다. 또 세상의 변화를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되 아무튼 어떤 무엇을 하기 위”(34)한 것이라 하듯이, 선용은 변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되지 않고, 여로의 방향이 없으며, 세계 변화의 진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선용의 여행은 낯선 길 위의 모험이라 하겠다.

미지의 세계와 조우하는 모험은 선용에게 생성의 과제, 즉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부여한다. 말하자면, 선용은 상실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생성의 과업은 이제 막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계의 변화에 몸을 싣는 것이므로, <옥랑사>는 개인과 세계가 함께 변화 성장하는 역사적 성장소설로도 읽힐 수 있다.¹²⁾

주인공이 역사의 급류 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이므로, <옥랑사>는 선용의 여로를 따르면서 간지와 연호를 사용하여 시간을 자세히 표시한다. 예를 들어, 1장 첫머리에서 “그것이 광무(光武) 四년 경자(庚子)—서기 一九〇〇년……” “이보다 十년을 앞서 고종(高宗) 二十八년 신묘(辛卯).”(5)라거나 마지막 12장의 첫머리처럼 “十년의 세월이 흘러 경술년(庚戌), 융희(隆熙) 四년.”(259)과 같은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선용의 주요 행위와 관련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병술년(1885) → 신묘년(1890) → 임진년(1891=1차 여행) → 계묘년(1892) → 갑오년(1894=1차 귀향) → 을미년(1895=2차 여행) → 무술년(1898) → 기해년(1899=2차 귀향) → 경자년(1900) → 경술년(1910)

이렇게 볼 때, 선용의 여행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이다. 말하자면, 낯선 장소

12) 바흐친은 성장소설의 유형을 역사적 형성없이 사적 발전을 드러내는 목가적·순환적·전기적·교육적 유형과 개인적 역사적 생성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유형으로 나눈다. 역사적 성장소설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간의 변화를 통합하는 소설이다. 즉 역사적 시간을 동화하면서 형성 과정의 인간이 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M.M.Bakhtin,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of Texas Press, 1986, pp.21-24 참조.

로의 이동이 아니라 격동기의 역사 과정에, 시간의 경과를 통한 세계의 경험과 현실 인식에 여행의 중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옥랑사>는 공간성이 아니라 역사성을 최대로 확장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여행에도 불구하고, 낯선 장소의 풍경과 그런 풍경에 대한 선용의 심리적 반응이나 실존적 기민성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선용의 여행이 장소, 공간의 모험이 아니라 시간, 역사의 모험임을 의미한다.

2. ‘우리’의 발견

시간 과정을 통한 모험의 내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경복궁 수비병정으로서의 전투, 동학군에의 참여, 독립협회 가담 등이다. 시류에 편승하려는 만동서 송서방의 말을 듣고 동학을 “허황하고, 사위스런 잡도”(79)로 여기던 선용은 외숙이자 동학 접주인 박재춘을 만나 생각을 바꿀 계기를 얻는다.

『(…)조정에는 불량한 권신이 짜고 들었어 정사와 백성을 농락허구. 밖으로는 외국이 군사를 함부로 거느리고 들어 와 우리 국토를 엿보고……. 그 래, 나라가 조모간에 망할 지경이니 그런 불량한 무리를 베히고 외국 군사를 물리치고 해서 나라를 바로잡고, 좋은 정사를 베풀어 백성이 편안히 살 게 하고…. 이런 뜻으로 난리를 일으킨다면 일으키는 것이겠지.(…)』(82)

권신과 외세를 제거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박재춘의 설명을 통해, 선용은 “그렇다면 동학도 무던한 거라고, 노상히 괘시할 것은 아닐까보다”(84)고 여기게 된다.

봉건지배와 외세침탈에 대한 선용의 인식이 경험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수비대 병정으로 일본군과 벌인 전투를 통해서이다. 전투 과정에서 늙은 병정의 죽음은 “국사”를 위한 “뜻 깊은 죽음”이지만, “개화의 신평조를 억지로 막”고 “백성의 반란을 치러 갔었으니” 세도 재상과 양반들에게 덕이 되었을 뿐 이 나라 이 땅에 끼친 “공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늙은 병정의 “쓰잘데 없는 죽음”에 선용은 수비병정이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131-132).

그러나 자신의 싸움이 봉건권력에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용은 일본군과의 전투를 피하지 않는데, 이는 “일본군”은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군”

인 까닭이다(133). ‘남의 나라’라는 말이 암시하듯, 선용은 내부적 권력체계보다 이민족의 침략을 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 전투 이후, 수구파뿐 아니라 개화파 역시 백성의 힘을 배제하고 “남의 불에 게 잡”으려는(140) 사대주의라 하고 개화당 가입을 권유하는 강영석의 제의를 거절한 일이나, 국권상실도 “백성의 손에 망하지를 못하고 타국=일본에게 망한” 것이 애석(270)하다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의 불’ ‘타국’에 대한 선용의 자각은 타자에 근거한 주체인식이다. “우리 국토” 혹은 “우리의 강토”(141)라는 표현을 동원하고 있거니와, <옥랑사>는 구한말의 형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청국이 늙은 범이라면, 일본은 어린 샴쌍이요, 노서아는 북방의 주린 곰이었다.

이 세마리의 맹수가 조선이라는 한 덩이의 고기를 사이에 놓고, 으르렁거리며 싸웠다. 조선을 얻는 자 극동의 패권을 쥐는 자요, 조선으로부터 쫓긴 자 극동으로부터 발붙임을 잃고 마는 자이기 때문이었다.(17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용은 ‘남’에 대응하여 ‘우리’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영토를 노리는 외세가 침략자라는 공동성을 지닌다면, 적의 공동성에서 비롯된 박탈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선용은 공동주체, 즉 ‘우리’라는 집단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용은 영토에 근거한 공동체, 지리적 관련에 의해 통일된 집단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¹³⁾

외세의 강제력에 대해 ‘우리’가 민족구성원을 뜻한다면, 국내적 권력체계에 대응한 우리는 계급구성원을 의미할 것이다. 1장 제목이 『아전의 자식』이고 2장 제목은 『양반의 딸』인 것처럼, 선용은 계급의 존재와 대립을 의식하고 있다. 아전은 “원이나 양반의 밥”(25)이라 하고 “아전-쌍놈의 해폐”(48)를 뼈저리게 경험하거니와, 최토호를 마주걸이로 정치함으로써 선용은 계급대표자의 성격을 띠며, 늙은 병정의 헛된 죽음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계급적 연관을 자각한다고 하겠다.

13) D.Carr, *Time, Narrative, and History*, Indiana Univ.Press, 1986, pp.132-133 참조.

이렇게 볼 때, 선용은 영토적 관련과 계급적 관련 양면에 걸쳐 외부의 강제력을 체득한다고 하겠다. 국내의 봉건적 수탈과 관련해서 계급적 귀속성, 즉 계급의식을 얻게 되고, 외세의 침탈과 관련하여 민족적 귀속성, 곧 민족의식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생성의 과제에 대해 선용의 여행은 개로서의 ‘나’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공동주체로 답한 셈이다.

나라는 개인의 모험이 우리라는 집단의 발견에 이른다고 볼 때, <옥랑사>는 구한말의 사회과정을 지배한 통일된 힘으로 반제반봉건(反帝半封建)의 기치를 강조한다고 하겠다. 특히 동학농민전쟁을 “백성의 난리(民衆蜂起)”(97)로 인식하고, “민족국가를 근심”하는 진보적 지식청년들의 독립협회운동이 “민중의 힘”으로 “조선의 자주독립”(186)을 모색함에 있다고 한 것은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 하겠다. 그것은 민중의 힘에 근거한 민주적 권력체제와 자주적 민족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선용의 계급적 자의식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옥랑사>의 서술자는 동학농민군의 고시문 가운데 “아전 또한 백성”(105)이라 한 것, 격문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108)이라 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이라 지적한다. 이같은 지적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하나는 <옥랑사>가 상대적으로 봉건적 수탈보다 제국주의 침략을 더 강조한다는 뜻이다. 이는 공동의 적에 대응함에 있어 체제내부의 극단적 상호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략적 고려일 수 있다.¹⁴⁾ 다른 하나는 선용의 아버지가 아전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장에서 드러나듯 원과 양반뿐 아니라 아전의 극성스런 토착질도 양민 도적화의 한 요인이다.¹⁵⁾ 그렇다면, 선용에게 공동주체로서의 계급적 민족적 정체성을

14) 동학군의 폐정개혁 내용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봉건지배의 체제내적 개혁을 통해 침략에 대비하느냐 혹은 봉건지배의 전면적 부정을 통해 침략에 맞서느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어떤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작, 『한말 내서널리즘 연구』, 청계연구소, 1989, 236-242쪽. 김인순, 「조선에 있어서 1894년 내정개혁 연구」, 마연정리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1988, 3판 참조.

15) 서리층은 농민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농민전쟁을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매천 황현은 호남지방의 이혜는 팔로에 으뜸이라 지적한 바 있다.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하』, 일조각, 1984, 증보초판, 179쪽.

부여하기 위해 <옥랑사>는 아전을 백성과 동일시한 부분을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러할 때, 아전층으로서 선용 일가가 겪는 사적 소유의 상실은 공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 방관자적 거리와 행위 공간의 축소

1. 민중역량에 대한 회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옥랑사>에서 개인의 모험은 ‘우리’라는 계급적 민족적 자각에 이른다. 그런데 공동의 외적 타자를 인식하고 우리라는 공동주체로 포섭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용의 인식과 행위 방식 사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선용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불투명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민중봉기가 일어날 “역사적 사회적 근거와 사태가 존재”(104)한다고 하면서도, <옥랑사>는 황토현의 승리는 “백면서생” 전봉준이 아습을 통해 얻어낸 우연한 것임을 강조한다. 2차 삼례 봉기 후 동학군 진영에 가담한 선용은 동학군은 “부질없는 수효”이고 “주체스럽기만 한 나그네들”이라 하여 비조직성을 지적하고, “승리를 맹신”(145-146)하는 지도부를 비판한다.¹⁷⁾

16) 채만식의 가계는 개항 이후 상당한 재물을 획득한 경영형 부농이라 할 수 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그의 선대는 특히 아전층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아전과 백성을 동일시한 고시문을 특별히 주목하고, 선용의 아버지를 물욕없는 사람이라 한 것은 아전이나 경영형 부농의 반민증성에 대한 채만식의 심적 방어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156-157, 257-259쪽 참조.

17) 동학 집단을 성립시킨 요건을 보면, 비조직성에 대한 선용의 비판이 적절하다고만 할 수 없다. 또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주문을 그는 사위스런 잡교의 주문으로만 말하고 있으나, 이는 운수풀이를 통해 공통경험의 장, 의식의 공감영역을 확보하고 희망과 구원을 주려는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이며, 또 종교적 구원뿐 아니라 광채창생의 혁명의식도 입당 동기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222-234, 244-245쪽 참조.

저두 동학당이 제일 일은 합직 하다구 생각했어요. 개화당이니, 민가네 사대당이니, 아라사 파니, 미국 파니, 아 소용 없구, 동학당 하나가 일하겠다구. 백성이 등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니깐요. 백성이 등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게 그게 힘 아네요? 그래서 저두 서울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무턱대구 쫓아 내려 오질 아니했어요. 했드니, 막상 와서 보니깐, 호왈 十만 해 놓구는 실속은 병정다운 병정 천백명 몫이두 못하게 생겨났으니 이거 큰 일 아네요?(153)

백성의 뒷받침이 없다고 본 선용은 동학군을 “오합지졸”이라 비판하고, 지역 단위의 양병을 주장하며 공주대전이라는 중요한 전투 직전에 진영을 이탈한다. “승부가 미리서 작정”된 싸움(146)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용의 이러한 판단은 행동을 낳을 조건이 결여된 객관현실에 대한 합리적 안목을 드러낸다.¹⁸⁾ 그러나 과욕하겠다는 선용을 만류하고 “집안 일은 둘째다. 나는 죽어야 할 사람”(164)이라며 의연히 죽음을 맞아들인 외숙 박재춘의 비극적 종말을 고려하면, 선용은 농민전쟁에 대해 거의 방관자와 다를 바 없는 거리를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¹⁹⁾ 선용이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애초에 대의에 헌신하는 일 자체가 합리적으로 의도된 목표를 지향하되, 개체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하고 몰인격적인 것이므로, 선용의 합리적인 시선은 백성의 “뒷받침”, 곧 민중이 지닌 역량

18) 갑오개혁의 실패, 농민군 내부의 갈등과 통일적 지도체제의 부재, 봉건지배층의 부패와 매판성 등이 농민전쟁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 지적된다. 강재언, 「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안병직·박성수 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328-330쪽 참조. 또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허술한 전력, 충분한 이념체제를 지닌 지도자의 부재,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이상주의적 색채 등도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날 내적 원인으로 해석된다. 조창환, 『해방전후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7, 124-125쪽 참조.

19) 죽음을 수락함으로써 인격적 고결함을 보인 박재춘은 <제향날>의 김성배, <여자의 일생>의 남진사와 흡사하다. 특히 <여자의 일생>은 동학농민전쟁의 성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남진사 또한 백성의 힘이 실재함을 경험한다. 1946년에 완결된 <여자의 일생>과 48년에 완성된 <옥랑사> 사이의 이런 미묘한 차이는 무엇일까? <어머니>를 <여자의 일생>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친일 소설 <여인천가>를 의식했고, <옥랑사>를 마무리하던 시기는 해방 직후의 들뜬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을 되찾은 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채만식의 개작과 관련하여,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164-168쪽 참조.

의 역사적 실재성을 회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민중의 생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간과한 것이며, 민중의 삶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위대함에 대한 몰이해와 다를 바 없다.²⁰⁾ 그렇기 때문에, <옥랑사>에서 지도자와 민중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며, 선용은 언제나 참여자의 내적 응집이 결여된 상황에 처한다. 경복궁 전투에서 부하들이 모두 도망간 뒤 “저 혼자만 남아서”(135) 싸우고, 황국협회와의 싸움에서도 “겹겹이 에운 적의 무더기 속에서, 혼자 처져 있는것”(208)처럼, 선용은 다른 인물이나 집단과 연대하지 못한다. 이전에 활빈당과 의병이 일던 시절의 자극을 받아 “나도 장차 보아서 한바탕”하려는 생각(24-25)이 없지 않았으나 그것은 막연한 계획이었고, 두목이 되어 달라는 초적때의 제의를 거절(13)한 바도 있다. 또 산막 생활을 하면서 “계제”보아 “무리”를 모아 일어설 것을 암시하지만(224, 244), 이 또한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선용이 참여한 일련의 행동은 공동체의 삶에 속한다기보다 개인적인 삶의 요소라 하겠고, 따라서 그가 발견한 우리라는 공동체는 관념적 발명품일 수 있다.

2. 역사적 비관주의

공동행동은 외압을 공동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참여이지만, 공동경험이 반드시 공동행동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주체에게 극동의 패권을 노리는 외세는 모두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들 주체의 내적 응집이 적대적 타자는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파당에 관점에서 본다면, 외세가 모두 적일 수 없다.

삼백년을 당파 싸움으로 갖은 비극, 갖은 추태 다 피우면서 살아 온 조선 사람이 일조에 개화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 버릇 별안간 남 주었을리 없는 것이었었다.(169)

채만식의 해방 후 강사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거니와, 당파 싸움, 곧 권력 상충부의 부패와 무능이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러파, 친일

20)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38, 206쪽 참조.

파, 친미파라는 파당은 외세에 의해 그 존재가 규정된 집단이다. 말하자면 타자가 이들 집단의 우리관계를 결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수탈과 침략에 노출된 민중은 어떠한가?

조정과 양반들이라는 것들은 백성들을 하나도 살게 하여 주는 것은 없고, 일일이 못 살게만 굴었고 백성들은 조정=나라가 털끝만치도 고마울 것이 없고, 소중한 생각이 없었고. 백성들에게는 조정=나라가 원수스럽고, 그런 원수스런 조정=나라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날 것이 없고. 그러느라니 백성들이 나서서 막으려 들지 아니한 것이요, 그래서 속절없이 빼앗기고 만 것이라 하였다.(269-270)

부패한 권력층이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니, 백성들 또한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해도 막으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민중은 행동하는 백성이 아니라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백성이며, 오직 수난의 경험을 공유할 뿐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파당(상층)과 고통받는 집단(하층)으로서의 공동성뿐이라면, 이들은 모두 민족의 운명에 대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고,²¹⁾ “민족국가의 멸망”(182)은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민중의 힘은 실재하지 않으며, ‘우리’라는 공동체는 주관적 발명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선용이 드러낸 역사의 방향성, 곧 민주적 권력체제와 자주적 민족국가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행위의 목적은 먼 미래에 성취되며, 그 성취 여부는 지금 여기서의 공동행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민중역량의 비실재성, 공동행동의 부재, 수난의 공동성을 견지하기 때문에, <옥랑사>에서 장선용은 역사적으로 주변적인 존재가 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들 불명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인간사냥이다. ‘불명’은 이름이 없다는 뜻(不名)과 명이 없다는 뜻(不命)을 동시에 지닌다. 이름이 없다 함은 이름을 짓고 부여할 아버지의 부재를 뜻하고, 아버지의 부재

21) 우리관계를 외적 대상의 뜻대로 규정할 수 없을 때, 공동주체는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외적 대상에 의해 우리관계가 유지될 때, 공동주체는 운동경기의 구경꾼과 같다. 경기 종목에 따라 우리는 이합집산할 수 있으므로, 우리주체는 대상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D.Carr, 같은 책, pp.134-135 참조.

는 명(命)이 없음, 즉 국권상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족사의 측면에서 내재적으로 역사의 단절이 있을 수 없다면,²²⁾ 불명이라는 이름은 역사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지는 무기력함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어린 아들의 죽음은 종(種)의 연속성이 중지됨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기원을 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선용은 자신의 미래 생성을 기약할 수도, 일상적인 삶의 세계와 깊은 연관을 맺을 수도 없다.²³⁾

인간 의지의 무력성, 종의 연속성 중지는 선용의 역사적 주변성을 표나게 드러내며, 이를 두고 <옥랑사>에 스며든 비관주의라 할 것이다. “인간사냥”, 곧 “살 몇 없는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분풀이”는 인간 능력에 관한 비관의 최종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선용은 무리를 모으지 아니하였다. 열이나 스물이나, 백명 천명이 있어도, 매양 그 없애자는 것을 없애지 못할 바이면 하나나, 열, 스물이나, 백명, 천 명이나가 다를 것이 없었다.(275)

합병에 대해 선용은 “일인놈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269) 싶지만, 그렇다고 빼앗긴 나라가 되찾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없애자는 것을 없애지 못”한다는 절망에 근거한 분풀이인 까닭에, 비장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선용은 민중과 연대하는 역사적 위대함을 지닐 수 없다.

<옥랑사>에서 선용을 포함한 민중의 역사적 주변성은 객관적으로 인식된

22) 국권상실은 국가개념 없이 민족개념만의 역사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448-449쪽 참조.

23) 출산 혹은 아이는 일상의 세계를 초월하여 나의 미래를 지지하는 부성(父性)의 모험이라 이해된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의 죽음은 공동체체의 참여를 중단하고 세계와 단절됨으로써 환원할 수 없는 나의 개별성을 되찾는 것이라고도 이해된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323-325, 333-338쪽 참조. 채만식의 소설에 아이(소년) 모티브가 현저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취급된다. 긍정적으로 다루고자 한 <소년은 자란다>와 같은 중편에서도 소년의 미래는 불투명한 전망 속에 있다. 이에 대해, 황국명, 『한국현대소설과 서사전략』, 세종출판사, 2004, 335-342쪽 참조. <소년은 자란다>를 포함하여 채만식의 해방직후의 중단편은 작가의 주관적 희망을 드러내었을 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전망일 수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우한용, 『채만식소설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96-112, 269-292쪽 참조.

것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투쟁하는 자의 비극을 규정할 사회역사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서술이 현저하기 때문이다. 5장 「聖恩이 禽獸에 미치다」는 임오군란 이후 10여 년에 걸친 민씨 일파의 전횡, 개에게 감역을 제수한다는 황감역 삽화, 동학군의 1차 봉기와 휴전에 대한 진술이 그러하고, 9장에서 독립협회의 성립과 활동을 설명한 부분, 8장 「通譯政治」에서 권력상층부의 부패와 무능에서 민족국가의 소멸에 이르는 상황을 서술한 것이 그러하다. 특히 5장과 8장에서 주인공 장선용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작중인물의 장악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역사소설로서의 약점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같은 상황서술로는 민중생활의 특수한 사실들로 구성되는 대상의 총체성을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심지어 <옥랑사>는 4년에 걸친 장선용의 2차 여행을 “조선 전도를 골골이 들르면서 포구도 찾고 절도 유심히 구경”(183)했다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할 뿐이다. 근대로 향해 가던 사회의 다양한 변화양상이나 개화기의 다채로운 풍속을 배제한 결과, 장선용은 민중의 생활현실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²⁵⁾

민중 현실에 침투하지 못한 까닭에, 선용의 인간사냥은 없앨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저항일 뿐이지 필연과 자유의 변증법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없다.²⁶⁾ 이미 결정된 승부라 여기고 동학농민군의 진영을 떠난 일, 아들의 이름을

24) 올바른 관점에도 불구하고, 인물을 대사건의 현장에만 등장시킴으로써 민중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지 못한 데 역사소설로서 실패한 요인이 있다고 지적된다. 채만식의 다른 역사물이 현실성을 확보하지 못한 강사류에 흐른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원식, 같은 글, 187-188쪽 참조.

25) 시간과 특정한 관련을 지닐 뿐 아니라, 역사소설은 공간적으로도 중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주변부의 불평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국가의 더 큰 단위로 통합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소설은 국가 수도에서 벗어나 변경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이다. F. Moretti, *Atlas of The European Novel*, Verso, 1998, pp.33-35, 40 참조.

26) 서정적 주관주의적 저항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형상화될 때, 인간능력의 역사적 주변성은 보다 풍부한 표현을 얻는다. 이를 역사의 진행과 인간의 의지의 변증법, 필연과 자유의 변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변증법을 통해 저항의 비극을 규정하는 사회적 요인이나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게오르그 루카치, 같은 책, 30-31, 186-193쪽 참조.

불명이라 작명한 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분풀이나 하겠다는 주관적 저항으로 볼 때, <옥랑사>의 비관주의는 역사의 예비된 종말에 인물을 속박한다고 하겠다.

3. 심리적 퇴행

민중현실과 접점을 갖지 못하는 주변성 때문에, 선용의 모험은 환멸에 이른다. 수비병정이 된 일을 후회하고, 동학군의 전투 능력과 비조직성에 실망하며, 성과없이 흐지부지된 독립협회의 일에도 크게 낙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의 여행에도 불구하고, 선용 자신은 소득 없이 귀향한다.

전후 두 차례나 객지로 나가 떠돌아 다니면서 약간 풍상도 겪었고 하였다.

소득은 무엇이나.

별반 두드러진 소득이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차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다시 시골 구석에 가만히 쫓아 엎드려, 농사나 짓고 한다는것은 가사 옥낭에게 대한 번뇌가 아니더라도 도무지 갑갑하고 마음에 차지를 않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또다시 인삼 삽작이나 해 가지고 나서 보았자, 조선 전판을 거진 다 다녀 본 나머지니, 더 다닐 곳도 없는 것.(223)

격변하는 세계를 경험한 선용은 “시골 구석”의 국부적 삶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국권상실 직전의 서울로 가고 싶지 않으며, “더 다닐” 주변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선용은 국가 경계를 넘어 해외로 지평을 넓혀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용에게 조선 밖의 낯선 타자는 민족적 삶을 위협하는 외세 열강이다. 국내외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면, 선용은 “세상을 등지고”(225)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팎 70리 내에 인가가 없는 노루재에 산막을 짓고 사냥으로 생활을 삼는다. 첩첩산중이니 간섭하고 시비할 사람 없고 “씩어빠진 세상, 아니꼬운 양반불이, 기승스런 왜놈”(224)을 보지 않으니 마음 편하리라는 것이다.

세상을 등진 삶은 외부현실과의 불화를 함축한다. 그런데 선용의 일대기를

두고 볼 때, 국가 상실에 이르는 역사전개와 인물 행위공간의 축소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를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글공부 → 농사 → 1·2차 여행 → 사냥 → 입산 승려 → 사당 앞에서의 죽음

여행자에서 산막의 사냥꾼으로, 거기서 다시 승려 생활을 하다 사당 앞에서 죽는 과정은 선용의 행동이 단힌 장소 혹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용의 시간 모험이 새로운 근대세계로 나아가는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형식의 변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옥랑사>는 국권상실에 이르는 파행적 근대화를 비판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회변화의 단계를 역행하고 공간적으로 하나의 점에 수렴되는 행위 방식은 일종의 심리적 퇴행이라 할 수 있다. 죽는 날까지 분풀이하겠다는 선용의 인간사냥은 욕망의 부정 혹은 죽음 욕망에 가깝다. 그래서 옥랑과 아들의 죽음처럼, 선용의 죽음도 저항의 비극이라 하기 어렵다. <옥랑사>의 대미를 장식한 영혼의 결합이 가장 뚜렷한 증거이다.

『탕 탕』

산 울림이 멀리까지 울려 나간다.

산새가 놀래어 깃을 치고 날아간다.

염초 냄새가 좌악 풍긴다.

평생에 그리던 옥낭의 앞에서 그의 영혼을 뒤따르리고는, 선용이 생각지도 바라지도 못하였던 노릇이었었다.(278)

인간의 감정은 사리대로만 되지 않는다(49)고 지적되거나, 옥랑을 향한 선용의 몰두는 시간 범주를 초월한다. 유동하는 시간과정 속에서 선용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의 사건은 옥랑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이다. 그 기억은 세상의 전부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내가 집을 버리구 七十의 편모와 젊은 가숙을 버리구, 유랑객이 되어 떠돌아 다니다 필경은 세상까지 버리구, 이 산중으루 들어 온 것이 다 닐 탓인지 아시요?』(233)

그렇기 때문에, 선용은 “옥낭을 잃음으로서 만사에 뜻이 없어 중”(268)이 되었다. 선용은 시간의 변동 속에서 국권상실과 모든 욕망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니힐리즘에 직면하였고, 이런 니힐리즘의 위협에 대해 연인과의 항구적인 영혼의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²⁷⁾

그러나 옥랑과 선용의 결속은 아이러니하다. 사랑은 그들이 원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한 장소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적 결합은 시간의 밖에 있을 뿐이고, 급진적인 역사의 변화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은 현재의 육체를 부정하고, 과거와 육체의 계보적 연관(가족)을 부정하며, 미래를 생성하는 육체의 힘을 부정하기 때문이다.²⁸⁾

IV. 예속의 역사와 전망 부재

1. 부정적 역사의 교훈

<옥랑사>의 후기에서 “歷史上 그 現段階에 있어서의 現實의 發見… 이것이 歷史文學의 正道”(279)²⁹⁾라 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현재를 형성과정에서 파악한 것이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현재의 전사로서의

27) 선용의 인간사냥으로서의 분풀이는 개인적 좌절과 복수라는 허무주의적 차원에 놓인다고 평가된다. 류종렬, 같은 책, 237쪽 참조.

28) 애초에 선용이 가족이라는 기본제도에 관심을 지녔던지 의문스럽다. 집을 떠나 기한없는 여행에 나설 뿐 아니라, 옥랑이 죽은 후 아들 불명을 채취 아내 서씨에게 맡기고 입산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제도나 봉건적 권위를 돌파한 것이었다면, 이들의 사랑은 정치라는 측면과 길항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옥랑사>는 구조적 이원성이라는 문제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역인 옥랑은 남성 시선의 대상이지 욕망주체가 아니다. 포ষ이 그러하듯이, 출산 즉 생물학적 재생산도 그녀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산막에 살 걸 그랬다고 후회할 뿐이다. 옥봉은 침묵하는 성(性)인 까닭에, <옥랑사>에서 두 남녀의 사랑은 가부장적 제도를 위협하지 못한다.

29) 이는 채만식의 말이라고 후기 작성자 최태웅이 술회하고 있으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과거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역사소설의 본령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사로서의 과거는 어떠한가? <옥랑사>에 제시된 선용의 다 음 진술을 보자.

『조선이란 나라는 종애속으루만 살기루만 마련인가 보지. 병자호란(丙子 胡亂) 때에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때려 뉘구서 집어 삼키더니, 이번엔 청국 허구 아라사를 때려 뉘구서 일본이 늘림 집어 삼켰으니. 이태엔 그럼, 아라사가 일본을 때려 뉘면, 미국이나 영국 법국이 집어 삼키구, 미국이나 영국 법국이 일본을 때려 뉘면, 미국이나 영국 법국이 집어 삼키구, 하렸다.... 이리 저리 팔려 다니는 종의 자식 신세만두 못하구나』(270-271)

과거 청나라의 종이었고, 현재 일본에 복속되었으며, 미래에 또 다른 나라의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장선용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승패나 없애지 못한다는 결과에 압도되고 심리적 퇴행의 방식으로 니힐리즘에 대응한 것처럼, <옥랑사>는 인간이 역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듯하다.

채만식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역사는 일관된 질서를 갖는다. 그런데 그 질서는 부정(不正)의 질서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상층부의 사대주의, 그로 인한 백성의 무관심, 그 결과로 들이닥친 외세의 침략과 국권상실 등을 부정의 내용으로 본다면, <옥랑사>에 드러난 역사는 엔트로피(entrophy)로서의 역사라 할 것이다. 엔트로피로서의 역사는 시간을 통한 사회정치적 변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³⁰⁾ 사회형식의 변화에 역행하는 선용의 삶이나 그의 일가의 죽음도 역사를 엔트로피, 곧 부정의 질서로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속이라는 부정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옥랑사>는 외세의존적 당파를 비판하고 공동체로서의 내면적 혁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선용은 국권상실을 두고 “노상이 남만 탓을 할 일이 아니라”(269)고 지적한다.

30)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2법칙을 뜻한다. 이에 의하면,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바뀐다. 즉 질서로부터 무질서와 혼돈으로, 사용가능한 것에서 사용불능한 것으로, 획득가능한 것에서 획득불가능한 것으로 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발전, 진보, 성장, 성숙이 아니다. 시간의 화살은 무질서한 미래로 나아갈 뿐이며, 따라서 역사의 진로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제한될 수밖에 없다. J.Rifkin, 『엔트로피: 새로운 세계관』, 김건, 김명자 역, 정음사, 1988 12판, 60-62쪽 참조.

『형제 화목히 지나구. 좀 불합한 일이 있더라도 남과 시비가 있거나, 일상을 겨루거나 한때는 합심협력 해서 대들구, 그러는 집안이 남한테 만만히 켜어 지나구, 수모 당하구 하는 법 없느니. 박돌이두 자식이나 있었드라면, 이런 교훈이나 할걸 그랬지』(270)

“남과 시비”가 있을 때 “형제”간에 “합심협력”하라는 ‘교훈’은 민족 내부의 모순보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동행동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해방기의 채만식이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하겠다. <歷路>(1946)나 <미스터 方>(1946)에서 드러나듯, 채만식은 좌우 이념 갈등, 노골적인 외세의존적 사고, 개인의 파당적 이해관계, 미소 강대국의 한반도 분할점령 등을 해방기 한국사회의 문제로 파악한 듯하다. 이런 문제인식으로부터 채만식은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한다면 부정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³¹⁾

이런 맥락에서, <옥랑사>는 민족을 호명함으로써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비록 시간을 통한 사회정치적 변동에 부정 일변도의 인식이긴 하나, 교훈이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매우 정당한 제안이라 할 것이다.³³⁾ 분단 고착화로 전개된 이후의 한국사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다.

31) <잘난 사람들>후기에서 채만식은 역사는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일러왔으나, 침략 외세를 숭배하고 자진 굴복 동화되어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치숙>의 나와 같은 인물이 상하층에 충만하여 있다 하고, 세상은 <치숙>의 시절을 방불케 한다고 적었다.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609쪽. 이런 맥락에서, 근대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민중을 일깨우려는 작가의 책임의식에 <옥랑사>의 창작 의도를 두기도 한다. 조창환, 같은 책, 126쪽.

32) 민족 내부의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또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관적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지만, <옥랑사>는 근대소설의 상징적 기능에 부합할 수 있다. 근대소설은 자본주의뿐 아니라 민족국가의 지정학적 현실과 연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맥락에서, 소설은 민족(국민)국가를 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상징적 형식이며, 지역애보다 민족애를 강조하여 국가의 보다 추상적인 지배를 이해시키려는 상징형식이다. F.Moretti, 같은 책, pp.17-18 참조.

33) 이런 진술에서 민주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진보적 역사의식과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분열이라는 해방 직후의 민족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인다고 이해된다. 이내수, 『채만식 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6, 125쪽.

2. 냉소적 태도

인간행동에 대한 교훈을 끌어낼 역사의 인과론적 패턴을 발견한 점에서, <옥랑사>가 과거 사실을 단순 진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편소설이 과거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기억이라거나, 형성과정에 파악된 현재 자체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 역사를 부정(不正)의 역사로 간주하는 채만식은 역사와 부정적(否定的) 관계에 있을 뿐이고 그 부정의 관계를 긍정의 관계로 전환시킬 매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⁴⁾

바로 이런 이유로 해방기 채만식의 현실인식은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친일에 대한 변증이라 할 <民族의 罪人>(1948)에서, 채만식은 작중인물의 입을 통해 “해방을 우리가 황재”한 것이라 지적한다. 황재한 해방은 타율적으로 주어진 해방이라는 뜻과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전망하지 못했다는 뜻을 모두 포함한다. 황재한 해방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결백을 황재”한 것이다. 이는 친일문제를 둘러싸고 “지조의 경도(硬度)란 미지수”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인간의 양심조차 역사와 투쟁하는 결정력이 아니라 역사의 우연한 부산물임을 뜻한다.³⁵⁾ 그러니 채만식은 일본 패전 뒤에 오는 것은 “혼란과 무

34) 채만식은 역사발전의 보편적 법칙을 강조하였으나, 그 토대 위에서 정작 강조한 것은 조선 역사와 현실이 처한 특수성이다. 1937년 「위장의 과학평론」에서 그는 외래의 자극으로 인한 파행적 제사실, 운명적으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수동적 제약성, 그래서 역사의 기형아임을 면치 못하는 게 조선의 특수현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채만식전집10』, 118쪽. 특수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채만식에게 조선의 역사는 인류역사의 보편적 발전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그는 역사 형성의 주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채만식의 부정(否定)의 논법이 관조적 유물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한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215-220쪽 참조.

35) 1940년에 채만식은 사상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고 자기분열을 드러낸 중편 <냉동어>에 이어 신체제로 급격하게 기울어진다. 같은 해에 씌어진 수필 <登槃岩>에서, 그는 여말 혁조 당일 절사한 손등과 하경을 두고 포은에 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해석한다. 더 나아가 포은이 “만일 암해(暗害)를 입지 않”고 “여명(餘命)을 보전했다면” “그는 일신상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채만식은 다른 현인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세상을 피했거나 고려의 궁궐 앞에서 머리를 깨트려 자결했을 수도 있다 하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일찌감치 그러한 자의 아닌 참해(慘害)를 입었던 것”이

질서” “살육과 약탈, 능욕과 방화, 질병과 기아의 구렁”이며 “죽음과 공포의 거리”일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지식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논 이야기>(1946)에서 보여지듯, 해방을 횡재, 즉 “남의 불에 게 잡기”라고 이해하는 일반민중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 없는 백성”을 자칭할 수도 있다.

결백이든 해방이든 그것이 횡재한 것이라 함은 사태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뜻하며, 따라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볼 때, 해방기 채만식은 정치나 역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중의 주체적 역량, 집단화된 민족의식의 사회적 실재성을 회의했다고 할 수 있다.³⁶⁾ 역사를 추진할 어떤 세력도 신뢰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있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해방 후 채만식의 현실인식의 핵심이며, <옥랑사>는 그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겠다.

한 사회가 나아갈 지평이 보이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채만식은 역사의 인과적 패턴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옥랑사>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서술을 강화할 수

니, 이로 볼 때 스스로 선혈을 뿌리며 왕조와 운명을 함께한 손등과 하경의 지개(志慨)가 더욱 아름답다고 하였다. 『채만식전집9』, 620-621쪽. 포은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손등과 하경의 기개를 높이는 데 본뜻이 있다고 하지만, 포은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참해를 입었다는 진술에 신체제로의 경사에 대한 심적 방어가 내포될 수 있다. 여명을 보전했다라면 포은이 역사에 남는 명망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고 암시하기 때문이다. 1946년 한 창작합평회에서 채만식은 김내성의 작품 <민족의 책임>을 비판하는데, 해방 전의 정세로 보아 “무턱 대고 일본이 패전하리라 확신했다는 것”은 진실된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해방 전 상황을 그리는 작품들에 자신이 많이 보지 못한 항일주의자가 “어데 숨었다 뛰어나오는지 참 신기”하다고 냉소한 바 있다. 『채만식전집9』, 560-561쪽.

- 36) 해방직후에 발표된 채만식의 단편소설 대부분은 역사의 주체에 대한 파악과 역사의 전개에 대한 전망을 결여한 채 민중과 지식인의 행태를 비롯한 모든 부정적 현실에 대해 비판으로 일관하며 이는 허무주의적 태도라고 지적된다.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제 부재의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172-180쪽 참조. 이는 역사적 전망의 상실과 민중연대성의 부재가 리얼리즘 작가로서 채만식의 한계라는 평가와 다르지 않다. 양문규, 『한국근대소설과 현실인식의 역사』, 소명출판, 2002, 174-176쪽 참조.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물과 환경의 복잡한 연관을 대신한 상황서술은 과거의 가능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작가(서술자)가 소설세계에 개입하려는 욕망의 산물이다. 채만식 특유의 풍자적 진술이 권위적인 서술자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전지적 서술자의 권위적인 서술은 상실한 부의식(父意識), 곧 국가의식을 회복하는 방식일 수 있다. 또 권위적인 서술자의 개입은 구한말의 사회사적 변동에 혹종의 설명과 평가를 보탬으로써 <옥랑사>를 단순한 연표 이상의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연대기적 상황 설명에 치중하기 때문에, 작중인물의 수가 제한될 뿐 아니라, 그들이 스토리를 장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옥랑사>는 작중인물의 이야기와 작가(서술자)의 언술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³⁷⁾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서술자의 현실주의적 태도가 드러난다. 예속의 역사, 견고하고 불쾌한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그것이다. 당파성, 사대성, 노예근성 등 예속의 역사를 근거로 삼은 냉소적 태도 때문에, 주인공 선용의 현재는 희망이 없고 옥랑에 대한 기억의 힘은 현재의 경험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다.³⁸⁾ 현실과의 형성적 만남이 불가능한 탓에, 선용의 죽음은 불가피하다. 물론 선용의 죽음을 통해, 역사의 불쾌한 인과를 통해 민족의 운명에 관한 교훈을 얻고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각성을 얻을 만하다. 더구나 임박한 미래를 낙관한다면, 역사소설을 창작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³⁹⁾ 그러나 자유의지, 역

37) 30여 년에 이르는 시간 진폭에 비해 <옥랑사>의 등장인물은 매우 제한적이다. 선용과 직접적 관련을 맺는 인물로 옥랑, 매부 강영석, 만동서 송서방, 외숙 박재춘, 박돌 등인데, 이들 상호간의 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들의 대결이 서사를 추동하지도 않는다.

38) 1939년경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경만절기>에서 추악한 종족근성이 비판되듯이, 해방 후의 <민족의 죄인>에서도 강자에게 아침하며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타협주의”는 “우리 민족성의 큰 결함”이라 지적된다. 너절하다는 종족근성을 타매할 뿐이라는 점에서, 채만식의 역사적 무책임성이 비판되기도 한다. 이경훈, 『근대주체의 좌절과 초극』,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같은 책, 148-163쪽 참조.

39) 삶이나 문학에서 해피엔딩은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말하자면 해피엔딩은 먼 미래에 살 사람을 위한 것이다. 현대세계에서 생존자의 완벽한 미래 전망은 회극적 신화라 하겠는데, 프라이는 민주주의의 진보 신화와 무계급사회 신화를 그 예로 꼽는다. N.Frye, *The Secular Scripture*, Harvard Univ.Press, 1976, pp.135-136 참조.

사적 주체의 실재성을 회의하는 한, 교훈은 언제나 작가의 사후(事後) 잔소리일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역사소설 <옥랑사>를 대상으로 채만식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장선용은 여행은 시간 모험이다. 즉 그의 여행의 중점은 낯선 장소로의 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통한 세계의 경험과 현실 인식에 있다. 이 여행에서 선용은 타자에 대응하여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외세의 강제력에 대해 ‘우리’가 민족구성원을 뜻한다면, 국내적 권력체계에 대응한 ‘우리’는 계급구성원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선용은 국내의 봉건적 수탈과 관련하여 계급의식을 얻게 되고, 외세의 침탈과 관련하여 민족의식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용의 여행은 개체로서의 ‘나’를 뛰어넘어 ‘우리’라는 공동주체로 이행하며, <옥랑사>는 민중의 힘에 근거한 민주적 권력체제와 자주적 민족국가의 구성을 역사의 방향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의 외적 타자를 인식하고 공동주체가 되지만, 선용의 인식과 행위 방식 사이에 적지 않은 틈이 있다. 공주대전이라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진영을 이탈한 것은 민중역량의 역사적 실재성을 회의하는 방관자적 거리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옥랑사>에서 선용은 무리를 이룸이 없이 혼자 행동하며, 수탈과 침략에 노출된 민중은 오직 수난의 경험만을 공유할 뿐이다. 민중역량의 비실재성, 공동행동의 부재, 수난의 공동성으로 볼 때, <옥랑사>에 역사적 비판주의가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아들 불명의 죽음과 분풀이로서의 인간 사냥은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선용을 포함한 민중의 역사적 주변성은 객관적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용의 행위는 사회역사적 상황과 이에 맞선 저항의 패배를 통해 이 형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옥랑사>가 역사의 예비된 종말에 인물을 속박한 증거이기도 하다. 민중 현실과의 접점을 상실한 주변적 존재로 머물기 때문에, 선용은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는 외부현실과의 불화를 함축한다. 선용의 일대기를 두고 볼 때, 여행자에서 사냥꾼으로, 거기서 다시 승려 생활을 하다 사당 앞에서 죽는 과정은 하나의 점으로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형식의 변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국권상실에 이르는 파행적 근대화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반경의 위축은 영혼의 결합을 드러낸 <옥랑사>의 대미처럼, 욕망을 부정하는 심리적 퇴행에 가깝다.

셋째, 이상과 같은 근거로 미루어, <옥랑사>는 역사의 진로에 대한 인간의 통제능력을 회의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엔트로피, 곧 부정(不正)의 질서라는 것이 채만식이 보여준 역사인식의 핵심이며, 이런 인식은 역사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否定的) 관계를 드러낸다. <옥랑사>는 예측이라는 부정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민족의 내면적 혁신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옥랑사>는 해방기의 채만식이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기의 현실에서 채만식은 역사를 추진할 어떤 세력도 신뢰하지 못하며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갖지 못한다. 이것이 채만식이 지닌 현실인식의 핵심이며, <옥랑사>는 그 문학적 표현이다. 역사와 현실을 향한 부정적(否定的) 냉소적 태도의 근원도 여기에 있다.

주제어 : 옥랑사, 역사소설, 역사인식, 현실인식, 우리 주체, 역사적 비관주의, 심리적 퇴행, 역사적 교훈, 부정적 관계

참고문헌

1. 자료

<옥랑사>, 성화사, 1961.

『채만식전집 8·9·10』, 창작과비평사, 1989.

2. 논저

강재언, 「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안병직·박성수 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328-330쪽.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 이영옥 역, 거름, 1987, 30-31, 38, 186-193, 206, 214-217쪽.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청계연구소, 1989, 236-242쪽.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연구 하』, 일조각, 1984, 증보초판, 179쪽.

김윤식, 「채만식의 문학세계」, 김윤식 편, 『작가론총서12 채만식』, 문학과지성사, 1984, 50-52쪽.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1974, 448-449쪽 참조.

김인순, 「조선에 있어서 1894년 내정개혁 연구」, 마연정리 외, 『잡신잡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 청아출판사, 1988, 3판.

김재용, 「세계질서의 위력과 주제 부재의 저항」,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172-180쪽.

류종렬,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221, 237쪽.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323-325, 333-338쪽.

양문규, 『한국근대소설과 현실인식의 역사』, 소명출판, 2002, 174-176쪽.

우한용, 『채만식소설담론의 시학』, 개문사, 1992, 96-112, 269-292쪽.

이경훈, 「근대주체의 좌절과 초극」,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같은 책, 148-163쪽.

이내수, 『채만식 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6, 125쪽.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222-234, 244-245쪽.

조창환, 『해방전후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7, 124-125, 126쪽.

- 최원식, 「채만식의 역사소설에 대하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177, 187-188쪽.
- 황국명, 『채만식 소설연구』, 태학사, 1998, 142-147, 156-157, 164-168, 215-220, 257-259쪽.
- 황국명, 『한국현대소설과 서사전략』, 세종출판사, 2004, 335-342쪽.
- D.Carr, *Time, Narrative, and History*, Indiana Univ.Press, 1986, pp.132-133, 134-135.
- F.Moretti, *Atlas of The European Novel*, Verso, 1998, pp.17-18, 33-35, 40.
- F.Moretti, *The Way of the World*, Verso, 1987, pp.202-204.
- J.Rifkin, 『엔트로피: 새로운 세계관』, 김진, 김명자 역, 정음사, 1988 12판, 60-62쪽.
- M.M.Bakhtin,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Univ.of Texas Press, 1986, pp.21-24.
- N.Frye, *The Secular Scripture*, Harvard Univ.Press, 1976, pp.135-136.

<Abstract>

A Study on <Ongnangsa(玉娘祠)> in Chae, Man-Sik's Historical Novels

Hwang, Kook-M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focused on <Ongnangsa(玉娘祠)> in Chae, Man-sik's historical narratives. As a results, the protagonist became common subject through the adventure of time. But there was a pessimistic view of history because he taked a skeptical view about the people's potentials and common actions. And the protagonist disclosed a mental regression. Therefore, it was the core of Chae's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korean history was the order of injustices. This consciousness based on Chae's a understanding of the realty that not found a propelling subject of history and a vision of the future.

Key Words : Ongnangsa, historical novel, historical consciousness, recognition of the reality, we-subject, historical pessimism, mental regression, historical precept, negative relation